

VII. 총 평

1. 국내준비

- 1) 참가 신청이 많았지만 인원은 버스 한 대에 승차할 수 있는 37 명으로 제한하였다. 의료인은 20 명, 행정 및 지원 인원은 17 명으로 구성되었다. 내년 단원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규모는 25 명 내외가 적당할 것 같다.
- 2) 모든 준비 업무를 적절하게 나누어 수행하여 물품의 구입과 포장 그리고 수송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단원수첩은 정은선님이 제작하였다. 기증 물품은 사전 교섭을 통해 모두 피플레 보건소가 아닌 학교에 전달하였다.
- 2) 작년처럼 개인 의약품 후원 비중이 큰 편이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참가자 개인의 추가적인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더써드닥터즈의 후원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2. 네팔 내 행정절차

- 1) 작년엔 보건소 승인만으론 통관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 금년의 의료캠프는 Rapti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늦은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무사히 통관되었다. 하지만 통관 시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 명단, 약품리스트, 그리고 비타민 등 약간의 선물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2) 의사들은 영문자격증을 지참하거나 사전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3. Piple Health Post

- 1) 작년 기증한 보비 등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이지만 관리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보건지소장 Yusuf Azad Ansari 와 대표 Nava Raj Panta 로부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 2) 보건지소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저 조산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향후 지원 계획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피플레 지역에서 연 700 명 정도의 분만이 이루어지는데, 500 명은 1~3 만원 경비를 주고 가정에서 조산사 도움을 받고 나머지 200 명은 정부 보조금 5 달러를 받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보건지소에서 분만을 하고 있다.

4) 보건지소가 그 지역에서 의료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캠프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नेपाल새마을중앙회 및 현지 자원봉사자

1) 학교 교사가 많이 참가하였다. 모두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었으나 보건지소의 일부 조산사들은 동기가 부족한 듯 보였고 태만하기도 하였다. 한국어 통역이 절실하게 더 필요하다.

2) 대표 Nava Raj Panta 는 현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으로 600 달러를 요청하였으나 사전 협의를 거쳐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다. 더써드닥터즈는 직접 경비를 주며 현지 인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지만 Nava Raj Panta 가 개인 경비 또는 다른 경비에서 일부 전용하여 지급했으리라 추측된다. 현지의 경제, 문화적 상황을 잘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3) Nava Raj Panta 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일차보건위생과 예방의학적 관점의 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더써드닥터즈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5. 진료

1) 의료캠프 장소로 학교 건물을 이용하였다. 치과진료실과 수술실을 포함해 총 8 개의 진료실을 운영하였고 예진 인원을 늘리고 일괄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선별검사는 한계가 있긴 하였지만 나름대로 진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원래 텐트 (또는 모기장)로 큰 강당을 분할하여 진료실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 계획을 수정하여 2 층 건물까지 모두 이용하였다. 차트는 우리의 용도에 맞게 별도로 제작하였지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었다.

3) 농양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제법 있었고 치과 환자는 한계를 넘을 정도로 많았다. 환자는 성별, 연령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지만 정확한 환자 통계를 위해 차트는 한국으로 가져왔다.

- 4) 약국 통계 기준으로 총 1,651 명 처방하였다. 중복진료와 재진 환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모든 환자들에게 칫솔을 나눠주고 구충제를 복용시켰다.
- 5) 적절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향후 보건지소의 산부인과 진료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6)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점심시간을 진료장소에서 해결함으로써 진료시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1 접수

- 1) 현지 자원봉사자 5 명이 접수를 맡았다. 보다 큰 글씨로 정확하게 인적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 2) 차트는 한글과 영문 또는 네팔어를 병기하여 간략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관리 문제는 차후 현지 실정에 맞게 재론해야 할 것이다.

6-2 예진

- 1) 고등학생 4 명과 대학생 1 명이 예진과 선별검사를 하였다. 의사의 현장 지도에 따라 원활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에 따라 진료실 배정을 하였다. 향후에도 예진 부서 배치는 캠프 참가자 수와 구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2) 통역 인원이 부족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네팔어 안내서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 3) 혈당계 배터리를 미리 더 준비할 필요가 있고, 자동혈압계가 수동혈압계보다 10~15mmHg 정도 높게 측정된다는 내과의사의 지적이 있었으니 향후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 4) 약국의 혼잡을 막기 위해 예진을 마친 모든 환자들에게 학생들이 구충제를 우선 복용시킨 것은 주효했던 것 같다.

6-3. 치과(8 번 진료실)

- 1) 치과의사 2 명(네팔 치과의사 1 명 포함), 치위생사 2 명, 자원봉사자 3 명, 기술지원 1 명으로 구성되었다. 바늘에 찔리는 일이 종종 있고 환자의 출혈을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고등학생 이상이 치과진료 보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이동식 치과체어, 컴프레서, 썩션, 스케일러 등의 설비와 기구가 진료기간 동안 비교적 큰 이상 없이 잘 작동하여 충치수복치료, 유치신경치료, 스케일링 등 다양하고 좋은 치료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총 발치 250 치, 스케일링 60 명, 충치수복치료 30 치 정도로 통계되었다.
- 3) 지난 1 년 동안 기계와 기구 관리가 잘 되질 않았고 이뉯이 교육자료는 남아있질 않았다. 캠프 시작 전 고장 난 컴프레서를 수리해야만 했었다. 지원부서 이상진 단원의 도움이 컸다.
- 4) 전력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해 컴프레서가 고장 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5) 지속적인 치질 예방 교육과 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함께 일한 현지 치과의사가 앞으로 일익을 담당하리라 기대한다.

6-4. 수술실(6 번 진료실)

- 1) 외과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는 농양이었다. 원인은 불결한 위생상태, 영양부족, 환경적 요인 등이 있겠지만 외과적 처치를 기피하는 네팔리들의 사회문화적 관습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작년에 이어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한 환자는 간단한 수술을 위해 마취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혈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심장질환 또는 저혈당 등의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상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의료정보와 치료 경험이 부족한 네팔리들의 심리적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서 외과적 처치를 해야 할 것이다.

6-5. 이비인후과(7 번 진료실)

- 1) 이구전색(귀지), 급성외이도염, 만성외이도염,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 부비동염, 급성 및 만성 인후염, 편도결석, 돌발성 난청 등의 환자들이 있었다. 생각과는 달리 환자들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6-6. 내과(5 번 진료실)

- 1) 예진을 실시하고 소변검사, 당뇨 그리고 혈압을 체크하면서 내과 환자가 많이 발견된 것 같다. 소견검사 항목 중 pH 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백뇨도 신장기능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요로감염 확인을 위해 백혈구 검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당뇨와 고혈압 환자는 1 개월치 처방을 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불확실하여 염려가 된다. 특히 단기간의 항고혈압 복용 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혈압이 오를 경우 뇌졸중 위험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소아 환자까지 진료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도 필요하고 피부질환 환자는 일반진료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6-7. 마취통증의학(1 번 진료실)

1) 원래는 독립된 진료실이 있었지만 접수 및 예진 부서를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

2) 한 진료실에 환자가 너무 몰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환자를 분류하고 배당하면서도 많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진을 할 경우 현장 지도를 할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6-8. 일반진료(2 번 진료실)

1) 의료캠프의 진료시스템이 전보다 발전해 전체적으로 많은 환자를 볼 수는 있었지만 숙소나 점심식사 장소와 거리가 멀어 시간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2)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예방법이나 약물과 치료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었으나 한국어 통역이 없어 아쉬웠다.

3) 저녁시간이라도 건강강좌 같은 지역보건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4) 피플레 지역이 생각과는 달리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약을 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캠프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동기와 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6-9. 일반진료(4 번 진료실)

1) 주요 질환은 진균성피부염, 만성 완선, 무좀 등이었고 탈색소반점이 있는 환자도 있었다. 그 외 감기, 천식, 위염 및 복통 환자가 있었다.

2) 이미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내원한 경우 간단한 약 처방과 전원을 재차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쉬웠다.

3) 예진할 때 차트에 임신여부를 기입했으면 좋겠다.

6-10 약국

- 1) 8 개의 진료실을 고려하면 약국의 업무 부담이 아주 컸지만 8 명의 약사(네팔 약사 1 명 포함)와 한국 및 네팔의 자원봉사자가 추가로 더 일하여 무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많은 약사의 지원과 참여는 더써드닥터즈의 큰 자원 중 하나이다.
- 2) 치과의 경우 약속처방을 200 명분을 준비하였고 모두 사용하였다. 네팔인들이 가정 상비약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더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 3) 적극적인 네팔어 습득 등 빠른 투약과 복약지도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통역이 부족하였지만 현장에서 섭외한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학교 졸업생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6-11 행정지원부서

- 1)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네팔 현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한국팀 인원이 최소 4 명 필요하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의료캠프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 2) 평지가 아닌 2 층의 건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원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무전기가 더 필요하다. 환자 안내를 위해 네팔어를 더 습득할 필요가 있다.
- 3) 약국과 치과 대기 환자가 몰려 대기표를 나눠주었다. 다음 의료캠프 때는 약국을 1 층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4) 점심식사 장소가 멀어 진료 마지막 날에는 학교 3 층 공간을 이용해 현지에서 식사준비를 하였다. 다음 캠프 때도 미리 섭외해서 진료 전일 모두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7. 행사

- 1) 환영식과 환송식은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이지만 일정 등을 고려해 네팔측의 양해를 얻어 행사의 내용과 시간을 단축시켰다.
- 2) Rapti 시장과 여러 관계자들이 의료캠프 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버스 안에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다. 시장의 방문은 더써드닥터즈의 활동이

지역 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관료들의 관심은 피플레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양측 모두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상호 교환하였고, 단원 중 학생들에게 활동증명서를 수여하였다.

8. 교통 및 일정

1) 카트만두-치트완-포카라 간 이동은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였다. 안전과 이동 소요시간을 고려해 앞으로도 계속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다. 내년 한국-네팔 간 직항편을 이용할 경우 전체적인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2) 8월 14일 카트만두-치트완 국내항공편이 연착되어 보우더나트 사원을 관람하였다.

3) 원래 계획은 치트완 Green Park Resort 에서 4박을 할 예정이었으나 천재지변에 의한 호텔의 침수 피해로 인해 8월 14일 숙박 장소는 Star Banquet Hotel 로 변경되었다.

4) 진료 3일간 점심식사는 Jumera Hotel 에서 현지식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둘째 날은 백숙을, 셋째 날은 라면을 지원부서에서 추진하였다. 네팔 현지에서 합류한 서재환 단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 8월 18일 아침 코끼리 투어를 하였고, 19일 포카라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하였다. 이는 모두 선택사항이다. 카트만두 도착 후 시내 관람 등 자유시간을 가졌다.

9. 경비 문제

1) Nava Raj Panta 를 통해 차량, 식사비 및 호텔을 일괄 계약하였으나 포카라 호텔의 경우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차량은 노후하였다. 앞으로는 번거롭더라도 계약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엄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차량 렌트와 호텔 계약을 대행한 업체로부터 세부적인 영수증을 요청해 수령하였다.

3) 더써드닥터즈의 경비가 약 780만원 정도 사용되었다. 국내 의약품 구입비만해도 약 757만원이기 때문에 단원의 참가비가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실비 외에도 준비과정 중 여러

항목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캠프 기간 중 식사나 회의 때 지출한 약간의 음료와 주류비는 결국 단원의 개인 비용이고 더써드닥터즈의 공금과는 무관하다.

10. 인수인계 및 향후 지원 계획

1) 모든 기증품과 남은 의약품 등은 피플레 보건지소장 Yusuf Azad Ansari 가 아닌 대표 Nava Raj Panta 에게 인계하였다. 세부적인 물품 리스트 제출과 남은 의약품을 이용한 네팔새마을회 주관의 의료캠프 시행을 요구하였다.

2) 2 천만원 예산의 피플레 보건소 지원 계획서 또는 Nepal-Korea Wisdom School 지원 계획서를 요청한 상태이다.

3) 진료 종료 후 바쁜 일정 때문에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잘 이뤄지지 않았고 남은 물품의 관리와 정확한 용도 확인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간보고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